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3.10원 상승한 1,148.50원에 마감
------	------------------------------

14일 환율은 전일대비 3.10원 상승한 1,148.5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5.30원 오른 1,150.70원에 개장했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1천600명대를 넘어서며 최다기록을 경신하는 등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했다. 다만, 1,150원 선 위에서 당국 경계심리 등이 작용한 가운데 네고물량이 꾸준히 나오며 전일대비 3.10원 상승한 1,148.50원에 마감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39.51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50.70	1151.90	1148.40	1148.50	1150.3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37.69	1044.16	1037.69	1043.14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48.79	1359.67	1348.36	1359.35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06	0.24	0.46	0.84
	결제환율(수입)	0.35	1.25	1.92	3.29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파월 연준 의장發 약달러, 이월 네고 유입에…1,140원대 초중반 등락예상
-------	---

NDF에서 환율은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48.50원) 대비 3.75원 내린 1144.75원에 최종 호가 되었다.

금일 환율은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서 기인한 달러와 미 국채금리 동반 하락 및 단기 고점 확인에 따른 이월 네고 물량 유입에 하락이 예상된다. 파월 의장은 최근 물가상승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견해를 고수하며 조기 테이퍼링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달러화 강세가 진정되면서 유로-달러 환율은 다시 1.18달러대를 회복했다.

다만, 환율 추가 상승을 우려하는 결제수요, 국내증시 외국인 자금 이탈 연속은 하단을 경직하는 요소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된 만큼 금통위 소수 의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40.00 ~ 1147.5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725.83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4.10원 ↓
	■ 美 다우지수 : 34933.23, +44.44p(+0.1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4.81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939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